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11	04. 18	04. 25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김효중 집사	이수헌 집사
성 경 봉 독	황희순 집사	김효중 집사	이수헌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부활주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2.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말씀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3. 성경 읽기-성령강림절(5월23일)까지 **대선지서(이사야~다니엘)**를 통독합니다.
4. 줌 예배 안내-수요예배(19시), 금요예배(시편 묵상, 20시)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부활주일**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161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빌 2 : 6 - 11 (신p320) 정용현 안수집사
(Philipper 2:6~11)
- 설 교 Predigt 부활은 영광입니다!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165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황희순 집사

부활 사건의 의미

한 소년이 숲속을 걸어가다 기쁨에 찬 얼굴로 나무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만지는 신사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그 신사에게 이 나무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신사는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그날부터 그 나무 아래로 가서 나무가 노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소년이 나무를 찾아가보니 예전의 그 신사가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 노래하는 나무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나무가 노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나무를 베어 떠난 신사가 다시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사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그 노래하는 나무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노래할 수 없었던 나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소년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활 경험은 복음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 김남준 목사
(열린 교회 담임)**

*** 내가 진리를 믿고 그것을 선포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 T. Fuller(영국의 성직자) -